

영국

신생 노동당 정부의 초대 과학장관

(김기국)¹⁾

지난 5월 1일의 영국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훨씬 넘는 기대 이상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18년만에 노동당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한 Blaire 노동당 당수는, 총리 취임 후 새로 구성한 노동당 내각의 초대 과학장관(현행 행정구조상 무역산업부 장관 예하에 있으며 내각의 일원은 아님)으로 과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노동당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John Battle을 임명했다. 현직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으로 이번 총선을 치렀으며 이번 내각 구성에서 당연히 과학장관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Adam Ingram은(내각의 일원인) 북아일랜드 장관으로 기용되었는바, 과학기술계에서는 다소 의외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신임 Battle 장관은 노동당 내에서도 이른바 "유연한 좌파(soft left)"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즉 노동당 내의 2대 극단세력인 전통적인 강성 "골수 좌파(old left)"와 Tony Blaire 당수가 주도하는 개혁지향적인 "새로운 노동당(New Labor)",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Battle 신임 장관을 노동당의 역대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높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총선 이전부터) 노동당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반노동당 성향의 인사들마저도 과학장관으로 Battle이 임명되는데 대해서만큼은 의외라고 할만큼 별다른 적대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당 정부가 추구할 과학기술정책의 노선과 방향이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런지를 가능해 보기 위해서는, 신임 Battle 장관이 과거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이었을 때의 행적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그 첩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2년 전, Battle 당시 노동당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은 영국내 저명한 과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약 50회 이상의 면담 및 토론을 거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과학기술의 장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2대 과제로서 ①단기업적주의(short-termism)의 불식 및 ②국가적으로 잘 조정된 과학전략(nationally coordinated science strategy)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과학전략의 부재가 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Battle의 주장은 당시 영국 학계 및 과학기술계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하원 과학기술특별위원회(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신생 노동당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 추구할 관련 의제들 가운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Battle 장관은 올바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구석구석으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 시절에 "과학 2000 프로젝트(Science 2000 Project)"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대규모 지역순회 과학정책 토론회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프로젝트는 Battle이 에너지 담당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렸으며, 과연 Battle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다시 부활될런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물론 Battle 장관의 임명에 대해 영국의 학계와 과학기술계가 마냥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Battle 장관의 임명 조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견해는 평소 "과학 담당

장관이 내각의 정식 일원으로 포함되도록 행정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과학기술계 내의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인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평소 논리와 시각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당 정부가 과학장관을 독립시키지 않고 무역산업부 산하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영국의 과학기반과 산업기반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연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과학기술국(OST)이 무역산업부 내에 존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대응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호의 해외동향분석-총선 이후 영국 과학기술 정책의 전망-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가 과학정책이 중요성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 과학기술계로부터의 의혹의 눈길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초점은 이번 내각구성을 통해 Battle 장관이 과학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같이 관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표> 참조). 물론 이번 총선 당시까지 Battle 장관이 노동당의 에너지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가는 일면이 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관련 업무가 하나의 독립된 부처의 영역일 정도로 방대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Battle 장관이 과학 관련 업무에 집중할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당 정부의 이번 인사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수한 과학 관련 업무의 위상 자체가 희석되어 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대조적인 견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Battle 장관의 전임자인 (보수당 정부의 마지막 과학장관이었던) Ian Taylor 장관이 과학기술관련 업무만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위상이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각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거꾸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과학장관의 존재가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더 유의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쪽 견해가 옳은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본 다음 판단할 일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을 영국정부의 핵심 관심사항의 위치로 끌어올리겠다"는 Blair 총리의 총선 이전 공연을 영국의 국민과 과학기술계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Ministerial responsibilities of DTI

직책	성명	업무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Margaret Bockett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nd the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Special responsibility for competitiveness and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for Trade	Lord Clinton-Davis	Trade Policy, export promotion and export control.
Minister of State	John Battl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environment issues.
Minister of State	Ian McCartney	Labour market, company law/corporate governance, inward investment and the Post Office.
Minister of State	Lord Simon of Highbury	Trade and Competitiveness in Europe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Nigel Griffiths	Competition, consumer affairs, investigations, supporting John Battle on environment issues.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Barbara Roche	Small firms, regional policy, trade and export matters in the Commons, supporting Ian McCartney on inward investment and John Battle on some industry matters.

주석 1) 지표통계분석팀, 선임연구원(Tel: 02-250-3074)